

‘파월 쇼크’에 증시 급락…환율도 연고점 경신

잭슨홀 미팅서 ‘자이언트스텝’ 시사
환율 1350.4원, 13년4개월만에 최고
코스피 2.18% 곤두박질 걸음은 월요일
고환율·고물가 복합위기 우려 커져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최근 잭슨홀 미팅(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경기를 둔화시킬 정도의 높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29일 국내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은 연고점을 기록하는 ‘검은 월요일’을 연출했다. 향후 글로벌 증시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잭슨홀 미팅은 매년 8월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파월 의장의 발언에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예상보다 매파적 발언한 파월

파월 의장은 26일(한국시간) 미국와 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며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강력히 사용할 것”이라며 “또 한번 이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높은 금리와 성장 둔화, 약해진 노동시장 여건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사이 가계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내놓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으로 29일 국내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은 연고점을 기록하는 등 ‘검은 월요일’이 아기됐다. 사진은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주식전광판에 표시된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 뉴시스

와 기업에도 일정 부분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9월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폭에 대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9월에도 자이언트스텝(한번에 0.75%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미국 개인소비지출(PCR) 물가지수 등의 지표가 다소 개선되며, 연내 금리 인상을 완화할 것이라는 파월 피봇(정책전환) 기대가 사라진 게 핵심이다.

파월 의장의 발언 여파로 26일 미국 증시가 약 3% 이상 급락했고, 이는 29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29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14p(2.18%) 내린 2426.89, 코스닥은 22.56p(2.81%) 하락한 779.89에 마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동학개미들은 파월의 발언이 아속하다는 반응이다.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서 한 투자자는 “8월 중순까지 안도팠리를 이어오며 국내 증시가 소폭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미국 연준의 FOMC 7월 회의록 공개와 이번 파월의 잭슨홀 쇼크로 다시 급락했다”며 “오를 만하면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아 아깝다”고 분노했다.

●국내 경기 침체 우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악순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미 금리의 역전을 낳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외국인 자본 유출이 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에 2.50%가 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연 2.25~2.50%와 상단 기준으로 같은 수준이 됐다. 하지만 미국 FOMC가 9월 회의에서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 미국 금리가 0.75%p 더

높아지고 한 달 전(0.25%p)보다 역전폭이 커지게 된다.

미국 연준의 긴축 가속화와 함께 유로화, 중국 위안화의 약세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29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1.3원)보다 19.1원 오른 1350.4원에 마감했다. 2009년 4월 28일(1356.8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 향후 1360원을 넘어 1400원 돌파까지 염두에 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시간을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고물가의 원인이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정부는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당분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금융·외환·채권시장 반응에 유의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국 기자 jjay@donga.com

금융

스포츠동아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15



이명연 홍익학원 이사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서종욱 홍익대 총장 (왼쪽부터). 사진제공 | 신한은행

신한은행-홍익대 ‘헤이영 캠퍼스’ 구축 맞손 대학생 전용 학사관리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신한은행이 최근 홍익대와 ‘헤이영 캠퍼스’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헤이영 캠퍼스는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추진하는 대학생 전용 모바일 플랫폼이다. 하나의 앱에서 전자 신분증(모바일 학생증) 및 학사 관리 서비스를 통합해 대학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홍익대에서 운영 중인 앱을 리뉴얼해 모바일 학생증, 전자출결, 성적·시간표·등록금 납부내역 조회, 도서관 출입 및 열람실 좌석배정 등의 주요 학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내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내년 신학기에 정식 출범한다.

하나금융, 의류 기부 캠페인 ‘쿨쿨옷장’ 진행

하나금융이 9월 7일까지 의류 기부 ESG 캠페인 ‘쿨쿨옷장’을 실시한다. 옷장 속에 잠자고 있는 의류를 기부자는 의미로, 의류 자원 제로 웨이스트에 동참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부 가능한 물품은 오염되지 않은 의류, 가방, 인형 등이다. 기부 물품은 선별 작업을 거쳐 발달 장애인 고용 매장 ‘굿 웰스 토어’에서 판매한다. 장애인들이 물류 창고 작업 및 판매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형태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자사 모바일플랫폼 하나원큐에서 신청 후, 기부 물품을 인근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전달하거나 하나은행이 제공하는 전국 무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도 가능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14세 이하 ‘키즈웰컴 패키지’ 행사

KB국민은행이 9월 30일까지 14세 이하 고객을 위한 ‘키즈 웰컴 패키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KB국민은행 거래가 없는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고객이다. 자녀의 입출금통장을 신규가입하고, KB스타클럽 가족고객 등록 및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한 고객 전원에게 스타프렌즈 학용품 세트를 준다. 또 자녀 명의의 주백정약종합저축 신규가입 고객 전원에게 현금 2만 원을 추가 제공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30일(화)		
서울 80/80	인천 80/90	춘천 70/80			
19  21	19  22	19  21			
강릉 70/80	대전 60/90	전주 60/70			
20  23	20  24	21  27			
광주 60/70	대구 60/80	부산 60/60			
22  28	21  25	23  27			
창원 60/60	제주 30/6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C			
21  27	26  33	날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98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보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우리금융 ‘PR 캠페인’ 2000만뷰 돌파…아이유 효과 톡톡

세대 아우르는 신규 광고모델 발탁 “우리란 단어로 큰 공감 이끌어내”

모델 아이유와 함께한 우리금융의 그룹 PR 캠페인 영상이 누적 조회수 2000만회를 돌파했다.

이 회사는 4월 2030 MZ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아우르는 이미지를 가진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신규 광고모델로 발탁했다. ‘(아이)+YOU(유)=우리’라는 콘셉트로 시작하는 광고 캠페인은 ‘우리’라는 단어에 담긴 특별한 의미와 힘을 주제로 다양



모델 아이유를 내세워 누적 조회수 2000만회를 돌파한 우리금융의 그룹PR 캠페인. 사진제공 | 우리금융

한 연령층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산울림(김창완)의 ‘개구쟁이’ 노래 가사를 활용한 경쾌한 영상은 ‘혼자서는 어렵

지만 우리이기에 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사회공헌 및 ESG 활동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

또 ‘우리의 의미’ 편은 조회수 770만회를 기록하며, 올 2분기 영향력 높은 유튜브 인기광고 영상 4위에 올랐다. 특히 “우리 친구들, 항상 서로를 믿고 응원하자”, “우리 딸,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 표현은 서툴지만 누구보다 사랑해” 등의 따뜻한 댓글이 눈길을 끈다.

회사 측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우리’의 의미에 대해 고객이 다시금 생각하게 한 점이 큰 공감을 이끌었다”며

“향후 고객 마음 속 첫 번째 금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접점에서 콘텐츠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제25회 우리은행 우리 미술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유치원생(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과 초·중·고등학교생이다.

대회 일정은 9월 22일까지 온라인 예선 접수, 10월 4일 본선대회 진출자(600명) 발표, 10월 15일 오프라인 본선대회, 10월 26일 최종 수상자 발표순으로 열린다. 수상작품은 주요 미술대학 교수 및 미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최종 수상자에게는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비롯해 다양한 상과 장학금을 수여한다.

정정국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30일(화) 음력: 8월 4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토끼를 만나면 풍파가 일어난다.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오해를 살수도 있겠다. 기발한 모책으로 상대를 누르고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는 기운이 강하지만 오히려 내가 당할 수도 있는 날이다.		이일 저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사로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반복되는 일로 피곤한 날이다.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계방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엉뚱한 짓을 하기 쉬운 날이다.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다. 오늘은 육해상일이다.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나 너무 서두르지 말라.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주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실리를 챙기려 하는 날이다.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주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실리를 챙기려 하는 날이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데 걸맞은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출장근무가 잘 성사되는 날이다.	